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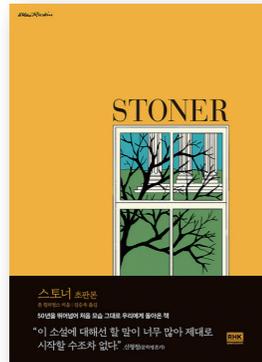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천사소녀답정너 #아무진세미집순이 #무채색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

글. 고양시도서관센터

#1

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릴
질문은?
스토너



존 윌리엄스 | 알에이치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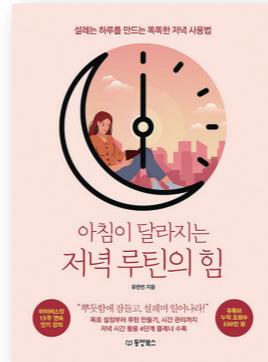
주인공 스토너는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도 하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삶의 순간순간은 그에게 결코 쉬운 것은 없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스토너는 자신에게 묻는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가끔 삶이 무기력해질 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천사소녀답정너

[책속한줄]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2

일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류한빈 | 동양북스

누군가 말했다. 직장이라는 곳에 첫발을 디딘 자는 오후 8시간 되면 기절하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한 달이 걸리고, 지인과 약속을 잡기까지 석 달, 이 적응기를 포함하여 퇴근 후 생산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기간이 반년에서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된다고. 슬슬 좀이 쏘시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아무진세미집순이

[책속한줄]

“시간을 의식하여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퇴근 후 시간이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보다 두 배 긴 하루를 살 수 있다.”

#3

감각적이고 섬세한 성장기 소설
불은한 파랑



정이담 | 황금가지

“우주 너머에 낙원이 있다고 말해 줘.”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낙원이 필요했던 두 청춘의 성장기 같은 소설.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상실감을 이해해보느라 책을 읽는 내 마음이 먹먹했고, 세상의 발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장 하나 하나가 모여 아름답게 빛나는 책. #무채색레드벨벳

[책속한줄]

“죽음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태어나는구나. 달은 반쪽짜리 얼굴로 미소 지었어. 사랑이란 알갭어. 부서지는 만큼 탄생하니까.”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2522629>

2021 고양 북스타트에 참여하세요!

고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서관이 그림책을 선물합니다.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또는 임신부 중 고양시립도서관 회원

배부일 2021. 4.~12. 중 북스타트DAY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일요일 10시)

신청일 매월 15일 오전 10시~

참여기관 총 48관(19개 시립도서관, 17개 공립작은도서관, 12개 사립작은도서관)

문의 각 도서관별 문화행사담당자

*북스타트란?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여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